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Emotion Regulation Style and Parent Attachment :
Effects on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Life*

유안진(An Jin Yoo)¹⁾

이점숙(Jum Sug Lee)²⁾

정현심(Hyun Sim Jung)³⁾

ABSTRACT

Subjects were 2192 middle and high school students of Seoul and Kyonggi Province. Data, consisting of a self-report questionnaire, were analyzed by two-way ANOVA, univariate F-test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Findings were that boys showed more avoidance/distraction and active problem solving styles but less support seeking than girls. Older adolescents reported less parent attachment than younger adolescents; girls reported more mother attachment than boys. Older adolescents reported more life satisfaction than younger adolescents; girls reported more life satisfaction than boys. A higher degree of life satisfaction was reported by subjects with more parent attachment, more active problem solving and less avoidance/distraction styles, by younger adolescents, and by girls. Degree of parent attachment was the most powerful predictor of adolescents' satisfaction with life.

Key Words : 정서조절 양식(emotion regulation style), 부모 애착(parent attachment), 생활만족(life satisfaction), 청소년(adolescents).

* 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해 지원되었음.

¹⁾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²⁾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강사

³⁾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

Corresponding Author : Jum Sug Lee, Departmen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an 56-1 Sillim 9 dong, Kwanak-gu, Seoul 151-742, Korea
E-mail : leejs0427@hanmail.net

I. 서론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발달과 함께 정신적 성숙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발달과업이 주어지면서 변화와 혼란을 겪는 시기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들은 많은 부적응적 행동을 표출하기도 하고 (이춘재·박금주, 2000; 최선남·최외선, 1999) 가정생활이나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기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청소년의 적응에 관심이 집중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정옥분, 1998). 그러나 적응이라는 객관적인 지표가 주는 의미도 크지만 한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것의 중요성도 매우 크다. 최근 청소년의 우울과 비행이 역기능적 상황에 처한 청소년 뿐 아니라 일반 청소년에게까지 확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경님·하연미, 2004). 이는 어떤 가지적인 부정적 상황 외에 그 개인의 주관적인 기대수준과 실제생활의 괴리에서 비롯된다고 여겨진다. 생활수준이 향상되고 복지에 대한 관심이 증가될수록 주관적인 생활만족은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생활만족은 이 개념을 최초로 사용한 Neugarten (1961)에 의하면 일상생활을 구성하는 활동으로부터 기쁨을 느끼며, 자신의 생활에 대해 의미감을 느끼고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였다고 느끼며,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가지고 자신의 현재 약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가치 있는 사람으로 여기는 것으로, 낙천적인 태도와 감정을 유지하는 것이 생활만족이 높은 사람의 특징이 될 수 있다 (임창희, 2005에서 재인용). Kalish(1975)는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생애를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효율적으로 주위의 환경과 잘 적응하여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고 개인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정도라고 정의하고 있다. 최성재(1986)의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는 과거

및 현재의 삶과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미래의 삶과 활동의 전반적인 전망에 대한 긍정적인 정도라고 정의하고, 이를 측정하는 한국형 생활만족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를 개발하였다.

생활만족도는 여러 학자마다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지만 이들의 정의를 종합해보면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고, 자신의 생활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우냐를 주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각 개인의 기대수준이 얼마나 합리적으로 충족되었는가에 대한 평가로 정의될 수 있다(김혜원·김명소, 2000). 즉, 생활만족은 본인의 실제 생활이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 생활과 근접하다고 판단하여 느끼게 되는 주관적인 감정이며 생활의 태도이다.

최근 ‘웰빙’이라는 사회현상에서도 알 수 있는 것과 같이 생활의 질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로인해 생활에서 아무런 문제없이 적응하는 것을 넘어 이제 주관적인 생활의 질 즉, 생활만족에 대한 관심이 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적응에 비해 생활만족과 같은 주관적인 측면에 관한 학문적 관심이 적었을 뿐 아니라 대부분의 생활만족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은퇴한 노인이나 사회생활과 다소 유리되어 있을 수 있는 주부의 생활만족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을 뿐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관련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따라서 이들의 생활만족은 어떠하며 이들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에 대한 검증이 요구된다.

Brief와 그의 동료들은 성격요인과 개인이 처하는 상황들이 삶의 만족도에 대해 가지는 영향은 개인이 삶을 해석하는 방식에 의해 매개된다고 주장한다(Brief, Butcher, George, & Link, 1993). 즉, 동일한 상황에 처해져 있다하더라도 그 상황을 해석하는 관점에 따라 본인이 지각하는 삶이나 생활에 대한 만족은 많은 차이가 나타

날 것이다. 따라서 부정적 정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표현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조절 양식을 사용할 것인가는 본인의 생활만족과 직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서조절은 타인과의 관계형성과 상호작용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능력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정서조절 양식에 관련된 연구가 그다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정서조절 양식과 관련된 선행연구의 대부분은 대학생과 성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정서의 변화 및 표출정도가 변이가 큰 청소년의 경우 다른 어떤 시기보다 정서조절의 필요성이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들을 대상으로 정서조절 양식을 조사하는 것은 의의가 있는 작업이라고 여겨진다. 정서조절은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과 타인의 정서조절을 포함한다. 자아 속에서의 정서조절은 자신의 긍정적인 기분을 유지하고 지속시키려 하면서 좋지 않은 기분을 감소시키려는 것을 의미한다. 타인의 정서 조절은 타인의 감정을 조절하고 바꾸려는 능력과 자신에 대해서 타인이 갖게 되는 인상을 조절하고 통제하기 위해서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방식을 조절하는 것이다 (문용린, 1996).

유능한 정서조절은 지각, 해석, 목표설정, 반응평가, 시행의 단계를 거친다. 특히 둘째 단계에서 정서적 각성을 일으키게 한 것, 그리고 부정적 정서를 바꾸는데 원인이 되는 것에 대한 해석 또는 인지적 재해석의 단계가 매우 중요하다. 정서조절은 개인의 안녕감과 성공적인 기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며 정서를 조절하는 양식은 정신병리와도 중요한 연관이 있다(Bonanno, 2001). 또한 정서에 대한 다양한 조절 양식은 그 방법과 상황, 경험하는 정서에 따라 효과와 만족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적응에 중요하다 (Barett & Gross, 2001).

정서조절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학자가 동의하지만 정서를 조절하는 방법과 관련되는 정서조절 양식을 구분하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마다 다른 양상을 보인다. Morris와 Reilly(1987)는 여러 문헌을 개관하여 인지적 재구성, 문제지향 행동, 친애행동으로 구분하였고, Thayer, Newman과 McClain(1994)은 부정적인 정서를 조절하기 위한 방략으로 능동적 조절, 주의분산, 수동적 조절, 정서의 발산, 약물복용, 철회-회피 등으로 구분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윤석빈(1999)은 정서 조절에 있어서의 개인차와 정서조절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관한 연구에서 정서조절 양식을 능동대처 양식, 지지추구 양식, 회피분산 양식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연구자들마다 부정적 정서조절 양식의 수와 명칭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지만 대체적으로 부정적 정서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식과 회피적이고 주의 분산적으로 대처하는 방식의 구분을 공통적으로 따르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많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추구하여 부정적 정서 상태로부터 벗어나려는 노력을 또 하나의 정서조절 양식으로 구분하고 있다. 능동대처 양식이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고 구체적인 해결 행동을 행하는 것, 자신의 느낌이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포함한다. 회피분산 양식은 자신의 기분을 나쁘게 만든 사람이나 상황에 대해 더 이상 생각하지 않거나 관계없는 다른 일을 떠올리면서 문제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지지추구 양식은 가족이나 친구를 만나고 그들에게 자신의 느낌을 이야기하며, 그들로부터 조언을 구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세 가지 정서조절 양식과 삶, 건강, 대인관계에서의 만족을 측정할 결과 능동적 대처양식은 삶, 건강, 대인관계 모두와 유의미한 정적 상관을, 지지추구 양

식은 대인관계와 정적 상관을, 회피분산 양식은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모두와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정서를 자연스럽게 표현하지 않고 억압이나 억제 시키면 역기능적인 증상들이 초래된다. 부정적 기분 상태를 표현하지 않고 내부에 주의를 돌리면 기분이 더 심화된다는 보고들이 많이 있다 (Scherer & Wallbott, & Summerfield, 1986). 우울할 때 능동적으로 기분에 방해되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완화되는 반면에, 반성적이고 수동적인 반응을 보이는 사람은 우울한 기분이 감소되지 않는다 (Morrow & Nolen-Hoeksema, 1990). 기분과 그 원인에 대해 생각해보거나 일기에 느낌을 적는 것과 같은 반성적인 반응은 부정적인 정보의 회상확률을 높이고 사건에 대한 부정적인 추론을 하게 만들며, 이로 인해 삶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게 만든다. 임전옥과 장성숙(2003)의 연구에서도 능동대처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의 경우 안녕감과 정적 상관이 나타나고, 회피분산 양식의 경우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를 명확히 인식한 후 그에 따른 조절노력이 있을 때 심리적 정서적 안녕을 얻게 된다는 것이 밝혀졌다.

지금까지 정서조절에 관한 선행연구들(윤석빈, 1997; 임전옥·장성숙, 2003)은 주로 영유아기 어린 아동이나 대학생 및 성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을 뿐 정서가 격변하고 정서표출이 극단적일 수 있어 정서조절의 필요성이 절실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정서조절 양식의 사용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인의 생활만족은 그 개인이 처한 환경적 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날 수 있다. 청소년기의 발달적 특성과 관련하여 많은 영향을 행사할 수 있

는 환경은 학교와 가정이다. 소득수준이 향상되면서 물리적인 환경이 개선되고 상대적인 차이가 적게 나는 반면 현대사회의 폐쇄성과 고립화가 심화되면서 그 개인이 형성하게 되는 인간관계의 중요성은 더 부각될 수 있다. 특히 청소년 시기는 영아기 이후의 주된 애착대상인 부모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점차 자신의 인간관계의 폭을 넓혀가는 단계이다.

애착이란 한 개인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에 대해서 느끼는 매우 강렬하고 지속적인 감정적 유대관계(Bowlby, 1982)이다. Bowlby(1982)는 어떤 연령에서도 믿을만한 타인으로부터 접근성과 반응성을 얻을 수 있다고 확신할 때 인간은 가장 잘 적응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Armsden & Greenberg, 1987; Armsden, McCauley, & Greenberg, 1991). 아동연구에 있어서 애착이 연구자들의 큰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생후 1년간 영아와 주양육자인 어머니와의 애착형성의 결과가 이후 발달과 대인관계의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Bowlby(1981)는 내적역동성 모델을 기초로 하여 영아가 형성한 애착이 이후 대인과 자신에 대한 긍정적, 부정적 내적 표상을 형성한다는 것을 통해 애착이 영아기 뿐 아니라 전생애 발달에 중요한 인자임을 입증하였다. 일생에 걸쳐 나타나는 애착은 질병이나 두려움과 같은 취약한 시기에 특별한 타인에게 다가거나 접촉하려는 행동적 성향으로부터 비롯된다. 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애착인물에 대한 접근성을 증진시키려는 시도가 줄어들지만 전화나 편지 같은 의사소통은 편안함을 제공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처럼 연령에 따른 애착행동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청소년기에도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secure base)로 남아 있으며 위협을 느끼거나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을 때에는 애착체계가 다시 활성화되며 애착대상은 환경에

대한 적극적인 탐색과 적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청소년이 맺고 있는 부모와의 관계는 자율과 정체감 형성을 위해 재조직되어야 하지만 이 시기의 변화와 혼란 속에서 부모는 여전히 안전기지 일 수 있으며 청소년의 부모와의 밀접한 관계는 이들의 적응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 자체로서뿐 아니라 부모에 대한 애착을 통해 형성된 내적 표상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 대한 긍정 또는 부정의 표상을 통해 자아정체감이나 타인과의 안정적 관계형성에 기여하며 나아가 개인의 생활만족과 많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부모 및 또래 애착과 삶에 대한 만족의 관계에 대한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에서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부모 및 또래애착과 심리적 안녕에 관한 연구(Raja, McGee, & Stanton, 1992)에서도 부모 애착은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며 부모애착이 높은 청소년이 우울도 낮게 나타나 적응을 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연구는 개인의 적응과 관련된 심리적 안녕이나 우울과 같은 변수를 측정하고 있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한 개인의 삶에서 객관적인 적응도 중요하지만 주관적인 만족이 차지하는 의미가 개인의 삶에서 중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더욱이 위의 결과들은 모두 외국의 연구결과이므로 부모자녀 관계의 양상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부여하는 의미가 문화마다 다를 수 있다는 것을 토대로 볼 때 우리 문화권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정서조절 양식과 부모 애착 및 생활만족이 연령과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를 확인하고, 부애착을 포

함한 회귀모형과 모애착을 포함하는 회귀 모형으로 나누어 생활만족에 대한 각 변수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문제제기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정서조절 양식, 부모 애착, 생활만족이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

<연구문제 2> 청소년의 부애착, 연령, 성별,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청소년의 모애착, 연령, 성별,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식, 부모 애착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서울 및 경기 지역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최종적으로 5개 중학교 및 5개 고등학교에서 중학생 1350명과 고등학생 1237명으로 총 2587명이 표집되었고, 그 중 결측치를 제외한 총 2192명이 분석대상이 되었다.

<표 1>에서 보듯이 전체 연구대상 2192명 중에서 중학생은 1097명, 고등학생은 1095명이었고, 중학생의 평균 연령은 14세, 고등학생의 평균 연령은 17.1세였다. 성별에 따른 연구대상의 분포를 살펴보면, 남아가 947명(43.2%), 여아가 1245명(56.8%)으로 여학생이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무직 58명(2.6%), 노동직 109명(5.0%), 기술직 191명(8.7%), 자영업 735명

〈표 1〉 연구대상의 일반적 특징

구 분	연 령		전 체	
	14세	17세		
성별	남	466명	481명	947명
	여	631명	614명	1245명
전 체		1097명	1095명	2192명

(33.5%), 사무직 517명(23.4%), 전문기술직 277명(12.6%), 관리직 144명(6.6%), 전문직 81명(3.7%)이었다. 어머니의 경우, 무직 950명(43.3%), 노동직 170명(7.8%), 기술직 169명(7.7%), 자영업 476명(21.7%), 사무직 223명(10.2%), 전문기술직 30명(1.4%), 관리직 20명(0.9%), 전문직 67명(3.1%)이었다. 가정의 경제적 수준은 한달 평균 수입이 150만원 이하가 457명(20.9%), 150-300만원이 944명(43%), 300만원 이상이 541명(24.7%)이었다.

2. 연구도구

문항 내용의 적합 여부와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관련 전공 교수 1인과 아동학 박사학위 소지자 1인, 아동학 박사과정 수료자 3인에 의해 안면 타당도를 검토 받은 후 내용을 수정·보완 하였으며, 검사도구의 신뢰도를 평가하기 위해 Cronbach's α 의 계수를 산출하였다.

1) 정서조절 양식

청소년이 가진 정서조절 양식을 알아보기 위해 윤석빈(1999)의 정서조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총 12문항으로 구성되며, 회피분산 양식, 지지추구 양식, 능동대처 양식의 세 가지 하위 척도로 구분되고, 각각의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응답자는 12개의 문항에 대해 4점 척도로 평정하며, 각 하위 척도의 총점 범위는

4-16점이다. 회피분산 양식, 지지추구 양식, 능동대처 양식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54$, $.69$, $.74$ 순으로 나타났다.

2) 부모 애착

청소년의 부모에 대한 애착을 측정하기 위해 Armsden, Greenbert, Burke와 Mitchell(1991)의 IPPA-R(Revised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중 부모에 대한 애착 척도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부애착과 모애착 척도는 각각 25 문항이며, 상호신뢰(10문항), 의사소통의 질(9문항), 소외(6문항)의 3가지 하위하위원으로 구성된다. 응답자는 5점 척도로 부모와의 관계를 평정하며, 부애착과 모애착 점수의 총점 범위는 각각 25-125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1$ 과 Cronbach's $\alpha=.90$ 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생활만족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측정하기 위해, Diner, Emmons, Larsen과 Griffins(1985)의 SWLS(Satisfaction With Life Scale)를 번안하여 사용하였다. 응답자는 5개의 문항에 대해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 정도를 7점 척도로 평정하며, 생활만족 점수의 총점 범위는 5-35점이다. 이 척도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3$ 으로 신뢰롭게 나타났다.

3. 연구 절차

본 연구의 조사는 2004년 11, 12월 서울 및 경기 지역의 5개 중학교 및 5개 고등학교에서 2학년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연구자와 아동학 전공 대학원생들이 각 학교를 방문하여 학급별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연구자와 전공자들이 각 학급의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에 한

해, 설문방법을 충분히 숙지한 교사가 학급에서 진행사항을 감독·지시하였다. 모든 학생이 응답을 마치면 설문지를 수거하였다.

4. 자료의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다. 각 연구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를 이용하여 검증하였고, 자료의 기초적인 분석을 위해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였다. 성별 및 연령에 따른 각 변수들의 유의미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과 F 검증(univariate F-test)을 사용하였으며,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한 다른 변수들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III. 결과 및 해석

1. 연령과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식, 부모 애착 및 생활만족

1) 연령,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식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정서조절 양식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정서조절 양식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2>와 같다.

청소년의 정서조절 양식의 경우 회피분산(F=7.39, $p<.01$), 지지추구(F=31.89, $p<.001$), 능동대처 양식(F=34.79, $p<.001$)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회피분산 양식은 남학생(M=9.89)이 여학생(M=9.62)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으나, 지지추구 양식은 남학생(M=10.12)이 여학생(M=10.81)보다 더 적게 사

<표 2>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 점수

변인	성별	연령		전체 (N=2192)
		14세 (n=1097)	17세 (n=1095)	
		M(SD)	M(SD)	M(SD)
회피	남	9.85(2.27)	9.94(2.38)	9.89(2.32)
분산	여	9.67(2.36)	9.57(2.21)	9.62(2.29)
양식	평균	9.75(2.32)	9.73(2.29)	9.74(2.31)
지지	남	10.10(2.63)	10.15(3.31)	10.12(2.99)
추구	여	10.79(2.71)	10.84(2.66)	10.81(2.68)
양식	평균	10.49(2.70)	10.54(2.98)	10.51(2.84)
능동	남	10.10(2.52)	9.95(2.63)	10.02(2.58)
대처	여	9.22(2.70)	9.51(2.50)	9.37(2.59)
양식	평균	9.60(2.64)	9.70(2.57)	9.65(2.60)

<표 3> 연령과 성별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이원변량 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회피	연령	.04	1	.04	.01	
분산	성별	39.22	1	39.22	7.39**	
양식	연령*성별	4.73	1	4.73	.36	
지지	연령	1.43	1	1.43	.18	
추구	성별	254.10	1	254.10	31.89***	
양식	연령*성별	.01	1	.01	.00	
능동	연령	2.57	1	2.57	.39	
대처	성별	232.11	1	232.11	34.79***	
양식	연령*성별	26.50	1	26.50	3.97*	

* $p<.05$ ** $p<.01$ *** $p<.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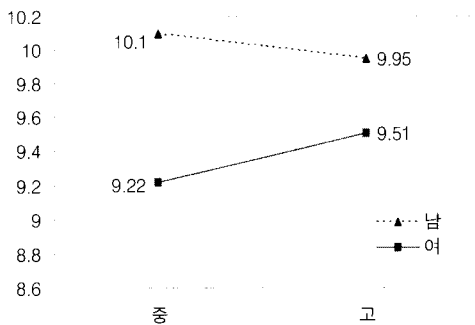
용하였고, 능동대처 양식은 남학생(M=10.02)이 여학생(M=9.37)보다 더 많이 사용하였다.

한편 능동대처 양식에서는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났다(F=3.97, $p<.01$).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능동대처 양식을 적게 사용하였는데, 이러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다. 남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동대처 양식을 적게 사용하였으나, 여학생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능동대처 양식을 많

〈표 4〉 청소년의 능동대처 양식 단순 주효과 분석

변인	집단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능동대처양식	중	남	466	10.10	2.52	207.098	1	207.098	30.46***
		여	631	9.22	2.63				
	고	남	481	9.95	2.67	51.035	1	51.035	7.80**
		여	614	9.51	2.50				

** $p < .01$ *** $p < .001$



〈그림 1〉 능동대처 양식에서 연령과 성별의 상호작용 효과

이 사용하였다.

단순 주효과 분석 결과,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능동대처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F=30.46, p < .001, F=7.80, p < .01$).

2) 연령,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부모 애착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부모 애착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5>와 같다.

<표 5>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부애착에서는 연령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42.37, p < .001$). 즉, 중학생($M=85.25$)이 고등학생($M=80.74$)보다 부애착점수가 더 높았다. 또한 청소년의 모애착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F_s=8.73, 9.35, p_s < .01$), 중학생($M=89.13$)이 고등학생($M=87.19$)

〈표 5〉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 점수

변인	성별	연령		전체 ($N=2192$)
		14세 ($n=1097$)	17세 ($n=1095$)	
		M(SD)	M(SD)	M(SD)
부애착	남	85.09(15.48)	80.69(14.79)	82.86(15.28)
	여	85.36(17.15)	80.78(16.08)	83.10(16.78)
평균		85.25(16.45)	80.74(15.52)	83.00(16.15)
모애착	남	88.06(14.84)	85.91(14.06)	87.01(14.48)
	여	89.92(16.95)	88.13(14.35)	89.04(15.74)
평균		89.13(16.11)	87.19(14.26)	88.16(15.24)

〈표 6〉 연령과 성별에 따른 부모 애착의 이원변량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연령	10847.83	1	10847.83	42.37***
부애착 성별	17.18	1	17.18	.07
연령*성별	4.49	1	4.49	.02
연령	2012.79	1	2012.79	8.73**
모애착 성별	2155.79	1	2155.79	9.35**
연령*성별	11.19	1	11.19	.05

** $p < .01$ *** $p < .001$

보다, 여학생($M=89.04$)이 남학생($M=87.01$)보다 모애착 점수가 더 높게 나타났다.

3) 연령, 성별에 따른 청소년의 생활만족
 청소년의 연령과 성별에 따라 생활만족은 유의한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이원변량 분석을 실시하였다. 각 집단별 생활만족 점수의 평균과 표준편차는 <표 7>과 같다.

〈표 7〉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 점수

변인 성별	연 령		전 체 (N=2192)	
	14세 (n=1097)	17세 (n=1095)		
	M(SD)	M(SD)	M(SD)	
생활 만족	남	20.02(5.65)	17.59(5.95)	18.79(5.93)
	여	18.79(5.78)	16.70(5.41)	17.76(5.70)
평균	19.32(5.75)	17.09(5.67)	18.20(5.82)	

〈표 8〉 연령과 성별에 따른 생활만족의 이원변량분석

변동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생활 만족	연 령	2765.94	1	2765.94	85.44***
	성 별	604.48	1	604.48	18.67***
	연령*성별	15.43	1	15.43	.48

*** $p < .001$

〈표 8〉에서 볼 수 있듯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서는 연령과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_s=85.44, 18.67, p_s < .001$). 즉 고등학생($M=17.09$)보다 중학생($M=19.32$)이, 여학생($M=17.76$)보다 남학생($M=18.79$)이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했다.

2. 연령, 성별, 정서조절 양식 및 부모 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령, 성별, 부모 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청소년이 부모 각각과 다른 관계를 가지고, 이 관계가 생활만족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가정하여, 부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과 모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을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를 측정 한 결과 부애착과 모애착의 경우 상관계수가 너무 높게 나타나 이 두 변수를 단일한 회귀모형에

함께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나누어 부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과 모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중다회귀분석을 하기에 앞서 설정한 모형의 가정이 적절한지 보기 위한 Durbin-Watson 계수 산출 결과 1.932, 1.926으로 나타나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항 간의 체계적인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공선성의 존재 여부 파악을 위한 허용도(Tolerance)와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산출하였다. 허용도의 값이 .1 이하이거나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이상이면 공선성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허용도의 값은 .879~.995로 모두 .1 이상이었고, 분산팽창요인의 값이 1.005~1.137로 모두 10이하였으므로,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설정한 회귀분석 모형의 독립변인들 간의 상관계수가 회귀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잔차항들이 독립적이고 정규분포이므로 정상적인 중다회귀분석의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연령, 성별, 부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9〉에서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해주는 변인은, 부애착($\beta=.13, p < .001$), 능동대처 양식($\beta=.36, p < .001$), 연령($\beta=-1.70, p < .001$), 성별($\beta=-.88, p < .001$), 회피분산 양식($\beta=-.14, p < .01$)으로 나타났다. 즉, 부애착을 많이 경험할수록, 능동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회피분산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생활만족이 높았다.

또한 연령, 성별, 부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22%로 나타났고, 부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가

<표 9>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한 연령, 성별, 모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의 상대적 영향력

생 활 만 족		
설명변수	b	β
1. 부애착	.13***	.36***
2. 능동대처 양식	.36***	.16***
3. 연령 ¹⁾	-1.70***	-.15***
4. 성별 ²⁾	-.88***	-.08***
5. 회피분산 양식	-.14**	-.05**
상 수	6.70	
R ²	.22	
F	120.25***	

** $p < .01$ *** $p < .001$

- 1) 14세를 0, 17세를 1로 가변수화 함.
- 2)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가변수화 함.

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2) 연령, 성별, 모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표 10>에서 모애착($\beta = .34, p < .001$), 연령($\beta = -.18, p < .001$), 능동대처 양식($\beta = .16, p < .001$), 성별($\beta = -.10, p < .001$), 회피분산 양식($\beta = -.06, p < .01$)

<표 10>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한 연령, 성별, 모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의 상대적 영향력

생 활 만 족		
설명변수	b	β
1. 모애착	.13***	.34***
2. 연령 ³⁾	-2.04***	-.18***
3. 능동대처 양식	.37***	.16***
4. 성별 ⁴⁾	-1.12***	-.10***
5. 회피분산 양식	-.15**	-.06**
상 수	6.54	
R ²	.20	
F	111.15***	

** $p < .01$ *** $p < .001$

- 3) 14세를 0, 17세를 1로 가변수화 함.
- 4) 남학생을 0, 여학생을 1로 가변수화 함.

도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해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는데, 모애착을 많이 경험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능동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남학생보다는 여학생의 경우에, 회피분산 양식을 덜 사용할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성별, 모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대해 갖는 설명력은 총 20%로 나타났고, 모애착이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부모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생활만족이 성별 및 연령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고, 연령, 성별, 부모애착 및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 2192명을 대상으로 부모애착과 정서조절 양식 및 생활만족을 측정하였다.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정서조절 양식은 성별에 따라 다르다. 즉, 회피분산 양식과 능동대처 양식은 남학생이 더 많이 사용하고, 지지추구 양식은 여학생이 더 많이 사용한다. 이러한 결과는 남아가 여아보다 회피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는 선행연구(임희수·박성연, 2002; Eisenberg, Fabes, Bernzweig, Karbon, Poulin, & Hanish, 199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정서조절 양식의 성차는 신생아나 영아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Feldman, Brody, & Miller, 1980; Weinberg, Tronick, Cohn, & Olson, 1999)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이 연구들의 결론에 따르면 생의

시작부터 정서조절에 성차가 나타나는 것은 타고난 성차로 생각될 수 있다. 또한 선천적 차이와 더불어 이러한 정서조절의 성차는 성 유형화된 차별적 사회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남학생과 여학생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성 정형화된 사회화를 받음으로써 남아가 정서를 표현하는 것에 대해 '사내답지 못함'으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되고, 이로 인해 남학생들은 회피분산 양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 또한 여학생의 경우 사회화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정서에 민감하고 타인과의 원만한 관계를 형성하여 조화를 이루도록 사회화되기 때문에 남아보다 여아가 지지추구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청소년들의 부모에 대한 애착의 경우 부애착과 모애착이 다른 양상을 보인다. 즉, 부애착의 경우 남녀 모두 17세보다 14세의 부애착이 더 높게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의 아버지와의 관계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갈수록 의사소통도 줄어들고 좀더 거리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남학생과 여학생 모두에게서 나타났다으며, 성별에 따른 부애착 점수에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에, 모애착의 경우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모애착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연령에 따른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부애착과 같이 14세 청소년의 모애착이 17세 청소년의 모애착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즉,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청소년들과 어머니와의 관계는 의사소통이 줄어들고 친밀감이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아버지에 대한 애착은 남녀 모두 낮게 나타나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고 남녀 모두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와 근접성 추구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어머니에 대한 애착은 성차가 나타나, 여자 청소년

의 경우 연령에 따른 모애착의 차이가 없지만 남자 청소년의 경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지 및 근접성 추구가 감소하면서 어머니에 대한 애착이 낮아지고 여자 청소년에 비해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더 몰두한다는 선행연구(정현희·오미경, 1993; Patterson, Field, & Pryor, 1994)와 부분적으로만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령에 따른 부애착과 모애착의 차이는 청소년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진학하면서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보내는 절대적인 시간이 줄어들어 부모와 의사소통할 시간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셋째, 청소년의 생활만족은 연령과 성별에 따라 다르다. 14세 청소년의 생활만족이 17세 청소년의 생활만족보다 높다. 즉,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생과 고등학생 모두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생활만족이 높고 여학생보다 남학생의 생활만족이 더 높다는 김경숙과 박미금(1999)의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우선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생활만족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은 고등학생보다 중학생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더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느끼고 대학진학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에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의 생활만족이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초기 청소년기인 중학생이 후기 청소년기인 고등학생보다 우울 및 불안이 낮다는 선행연구(김미영·강윤주, 2000; 김은정·오경자, 1992; Armsden, McCauley, & Greenberg,

1991)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또한 여학생의 생활만족이 남학생의 생활만족보다 낮게 나타난 것은 주관적 안녕감의 하위 구성요소로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고 있는 연구(김명소·김혜원·차경호, 2001; 조명한·차경호, 1998)에서 주관적인 안녕감이 남녀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과는 불일치하지만 13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조명한·김정오·권석만, 1994)에서는 여자 청소년이 남자 청소년보다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난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흥미로운 것은 전자의 연구는 성인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이고 후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삶의 만족도를 측정한 연구라는 것이다. 즉,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남녀간의 삶의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삶의 만족도 연구에서는 여학생의 만족도가 남학생의 만족도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시기의 발달적 특징과 신체상의 불만족에서 초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청소년기는 신체적 성장이 급속하게 이루어지고 이상적 신체상과 실제 지각하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상이 일치하지 않아 불만족스러워 할 뿐 아니라 여학생이 외모에 대한 관심이 더 많고 외모에 부여하는 가치가 더 높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것은 청소년의 신체상 지각이 생활만족에 유의하게 높은 설명력을 나타낸다는 연구(유안진·이점숙·김정민, 2005)에서 입증되었다. 따라서 부모나 교사는 청소년들이 변화하는 신체를 긍정적으로 지각하고 자신에 대해 긍정적인 정체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제기된다.

넷째,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모형 중 부애착을 포함하는 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변수는 부애착, 능동대처 양

식, 연령, 성별, 회피분산 양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부애착이 높을수록, 능동대처 양식을 더 많이 사용할수록, 연령이 낮을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회피분산 양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16-20세의 후기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Armsden & Greenberg, 1987)에서 부모애착 및 또래애착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것과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청소년의 부모 및 또래애착과 심리적 안녕간의 관련성을 고찰한 연구(Raja, McGee, & Stanton, 1992)에서 부모애착만이 청소년의 심리적 안녕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결과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청소년시기에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이 이루어지고 부모로부터 또래로 준거집단이 바뀌면서 부모와의 관계가 이전보다 소원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애착은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인이고 부모는 여전히 청소년들의 삶에서 중요한 존재이다. 그러므로 청소년과 부모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수 있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실시가 요청된다.

다섯째,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모형 중에서 모애착을 포함하는 모형의 경우 청소년의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는 모애착, 연령, 능동대처 양식, 성별, 회피분산 양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모애착 점수가 높을수록, 연령이 어릴수록, 능동대처 양식을 많이 사용할수록, 여학생보다는 남학생이, 회피분산 양식을 적게 사용할수록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연령이 모애착 다음으로 생활만족을 설명해주는 변수이나 부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에서는 부애착 다음으로 생활만족을 설명하는 변

수는 능동대처 양식의 사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아버지와 어머니와의 관계가 다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즉, 청소년의 연령이 증가하면서 부애착이 모애착보다 더 급격히 감소하기 때문에 부애착을 포함하는 회귀모형에서는 연령보다 능동대처 양식의 사용이 생활만족에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여섯째, 정서조절 양식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은 정서조절 양식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즉, 능동적 대처양식은 생활만족에 정적 영향을, 회피분산 대처양식은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지지추구 대처양식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러한 결과는 능동대처 양식과 지지추구 양식은 안녕감에 정적인 상관을 나타내고, 회피분산 양식은 안녕감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는 선행연구(임전옥·장성숙, 2003)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며, 능동대처 양식만이 삶의 만족도에 정적 상관을 보인다는 선행연구(윤석빈, 1997)와도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능동대처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사람은 자신의 부적 정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부적 정서를 전환하기 위하여 능동적으로 부적 정서와 관련 없는 다른 행동을 적극적으로 찾아함으로써 부적 정서를 완화하여 우울감과 불안 정도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볼 때, 능동대처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부적 정서를 느낄 때 자신이 성공적으로 부적 정서를 조절하므로 상대적으로 부적 정서를 적게 느낄 수 있으며, 자신의 정서적 역량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각할 가능성이 크므로 이들은 다른 청소년보다 자신의 생활에 더 만족스러움을 느끼는 것으로 추론된다. 실제로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부정적인 정서에 대하여 능동적이고 긍정적인 대처를 한다는 선행연구(Carver, Scheier, & Weintraub,

1989) 결과가 이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회피분산 양식은 부적 정서에 대해 생각을 안 하거나 일부러 다른 생각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생각을 안 한다고 해서 부적 정서가 해결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부적 정서가 남아 있게 된다. 따라서 회피분산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은 부적 정서를 해결하지 못해 우울 불안 등의 정서를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해 자신에 대해 무력감을 느끼거나 자존감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회피분산 양식을 자주 사용하는 청소년의 생활만족이 낮은 것으로 추론된다.

이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양식을 한 개인이 주로 선택하게 되는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개인이 정서를 조절하는 방식은 상황이나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상황 특정한 조절 양식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서조절 양식을 측정함에 있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분류하였는데 이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는 각 개인의 기록물(정서일기) 등으로 보완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정서조절 양식의 측정방법을 다각화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청소년의 생활만족과 정서조절에 관한 정보가 부족한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였고, 청소년의 생활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부모애착과 정서조절 양식을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상담과 지도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문은영(1993). 청소년의 심리적 특징 및 우울과 비행간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6(2), 29-43.

- 김 옥 · 이완정(2001). 부모의 이혼과 아동의 또래 애착.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 31-40.
- 김경숙 · 박미금(1999). 중 · 고등학생의 스트레스와 생활만족 및 그 관련변인 연구. *한국가정교육학회지*, 12(1), 33-45.
- 김명소 · 김혜원 · 차경호(2001). 심리적 안녕감의 구성개념분석 : 한국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5(2), 19-39.
- 김명소 · 성은현 · 김혜원(1999). 한국 기혼여성(아줌마)들의 성격 특성과 주관적 삶의 질.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4(1), 41-55.
- 김미영 · 강윤주(2000). 청소년기 우울성향과 관련된 요인. *한국학교보건학회지*, 13(2), 261-270.
- 김소희(2004). 스트레스 사건, 인지적 정서조절전략과 심리적 안녕감간의 관계.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은정 · 오경자(1992). 발달적 관점에서 본 아동 및 청소년기 우울증. *소아 · 청소년 정신의학*, 3(1), 117-128.
- 김혜원 · 김명소(2000). 우리나라 기혼여성들의 심리적 안녕감의 구조분석 및 주관적 안녕감과 관계분석. *한국심리학회지 : 여성*, 5(1), 27-41.
- 문용린(1996). 한국학생들의 정서지능 측정연구. 새로운 지능의 개념, 감성지능. 삼성생명 사회건강연구소(Peter Salovey 교수 초청 강연 자료), 59-89.
- 민경환 · 김지현 · 윤석빈 · 장승민(2000). 부정적 정서 조절 방략에 관한 연구 : 정서 종류와 개인 변인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 사회 및 성격*, 14(2), 1-16.
- 민하영 · 유안진(1999).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지각된 통제감과 아동의 스트레스 대처행동. *아동학회지* 20(1), 61-77.
- 박서정 · 김순옥(2005).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정서조절 전략 및 정서조절 능력간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4), 35-53.
- 박지아(2003). 적응 유연성과 영적 안녕 및 부모애착간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옥 정(1998). 청소년기 애착안정성과 우울성향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나현(2005). 애착, 심리적 독립, 정서지능에 따른 진로결정 자기효능감의 차이.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유안진 · 이점숙 · 김정민(2005). 신체상, 부모와 또래 애착, 탄력성이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3(5), 123-132.
- 윤석빈(1999). 경험하는 정서의 종류와 선행사건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의 차이.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귀선(2002). 성인애착 유형에 따른 정서조절 양식과 효과성의 차이. 카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은정(1999). 기분자각, 과제수행과 타인과의 상호작용 예상이 기분조절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지선(1999). 분노 및 슬픔 상황에서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와 정서조절 전략. *아동학회지*, 20(3), 123-137.
- 이춘재 · 광금주(2000). 집단따돌림 경험 유형에 따른 자기개념과 사회적지지.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3(1), 95-113.
- 임전옥 · 장성숙(2003). 정서인식의 명확성, 정서조절 양식과 심리적 안녕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 상담 및 심리치료*, 15(2), 259-275.
- 임창희(2005). 노인의 생활특성과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임희수 · 박성연(2002). 어머니가 지각한 아동의 기질, 어머니의 정서조절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조절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3(1), 37-54.
- 전은경 · 최보가(2004). 예 · 체능 방과후 교육프로그램 질과 아동의 정서조절 및 사회적 능력. *대한가정학회지*, 42(8), 33-48.
- 정현희 · 오미경(1993). 청소년기 자녀의 부모에 대한 애착과 자아개념과의 관계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85-95.
- 조은경(2000). 정서적 균형과 삶의 질. 삶의질의 심리학. 한국심리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차경호(2004). 한국과 미국대학생의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1(3), 321-337.

- 최선남 · 최의선(1999). 아동의 우울 정도에 따른 가족 환경 지각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0(3), 91-100.
- 최성재(1986). 노인의 생활만족도 척도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논집. *이화여대 논총(사회과학)* 제 49호.
- 한유진(2004). 아동의 정서조절 동기 및 정서조절 능력과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42(3), 65-77.
- 한정원(1997). 정서 표현성이 건강 및 주관적 안녕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Armsden G. C., & Greenberg, M. T.(1987). The Inventory of parent and peer attachment : Individual differences and their relationship to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6(5), 427-453.
- Armsden G. C., McCauley, E., Greenberg, M. T., Burke, P., & Mitchell, J.(1991). Parent and peer attachment in early adolescence depress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8, 683-697.
- Barett, L. F., & Gross, J. J.(2001). Emotional intelligence.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pp 287-310).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Bonanno, G. A.(2001). Emotion self-regulation. In T. J. Mayne & G. A. Bonanno(Eds). *Emotion*(pp. 251-285). New York : The Guilford Press.
- Diener, E., Emmons, R. A., Larsen, R. J., &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 71-75.
- Eisenberg, N., Fabes, R. A., Bernzweig, J., Karbon, M., Poulin, R., & Hanish, L.(1993). The relations of emotionality and regulation to preschoolers' social skills and sociometric status. *Child Development*, 64, 1418-1438.
- Feldman, J. F., Brody, N., & Miller, S. A.(1980). Sex differences in non-elicited neonatal behavior. *Merrill-Parmer Quaterly*, 26, 63-73.
- Greenberg, M. T., Siegel, J. M., & Leitch, C. J.(1984). The nature and importance of attachment relationships to parents and peers during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12(5), 373-386.
- Kalish, R. A.(1975). Aging self and personality. Late adult perspectives on human development. Caili Wordsworth Publishing company.
- Morrow, J., & Nolen-Hoeksema, S.(1990). Effects of responses to depression on the remediation of depressive affec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519-527.
- Patterson, J. E., Field, J., & Pryor, J.(1994). Adolescent's perceptions of their attachment relationships with mothers, fathers, and friend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3(5), 579-600.
- Raja, S. N., McGee, R., & Stanton, W. R.(1992). Perceived attachments to parent and peer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1(4), 56-68.
- Scherer, K. R., Wallbott, H. G., & Summerfield, A. B. (1986). *Experiencing emotion : A cross-cultural stud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einberg, M. K., Tronick, E., Cohn, J. F., & Olson, L. K.(1999). Gender differences in emotional expressivity and self-regulation during early infancy. *Developmental Psychology*, 35(1), 175-188.

2005년 10월 31일 투고 : 2006년 1월 28일 채택